

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		
보도 일시 2023. 3. 13.(월) 11:00 (행사 시작시) 이후 사용	배포 일시 2023. 3. 13.(월) 07:00		
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포용전환국	책임자 과 장 양대성 (044-200-1932)		
	담당자 전문위원 황보람 (044-200-1935)		

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, 기후테크 본격 육성에 나선다!

- 부산에서 기후테크 기업인, 시민, 청년 등 100여명 참석,
기후테크 벤처·스타트업 타운홀미팅 개최(3.13)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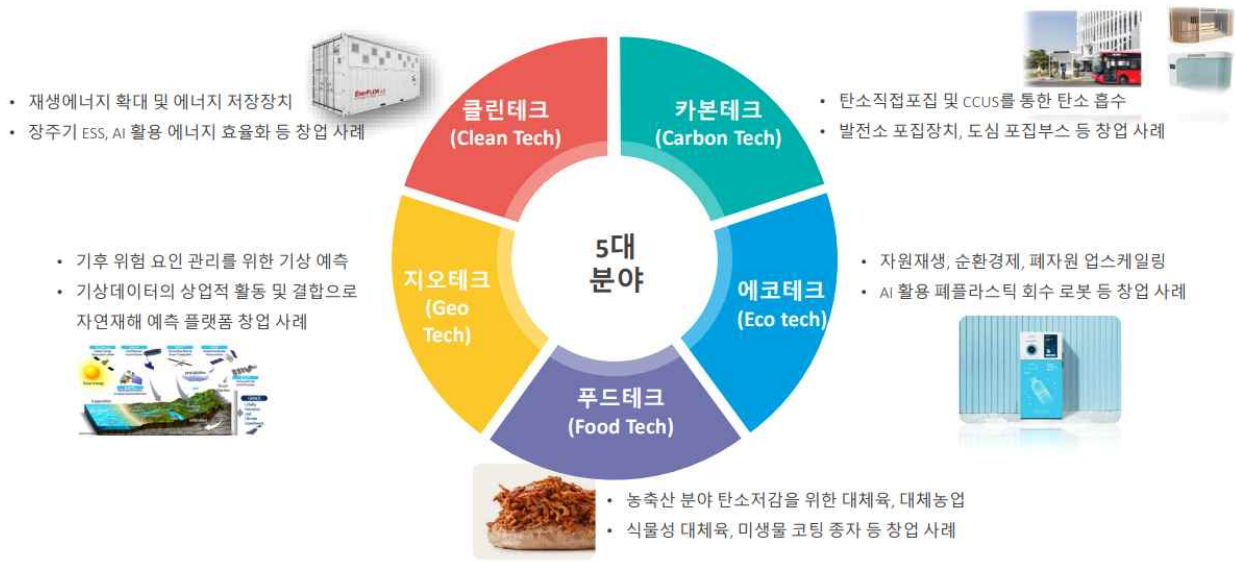
- ▷ 탄녹위 각계 의견 수렴 거쳐 기후테크 벤처·스타트업 육성 방안 마련 예정
- ▷ 5월 부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힘 보태

- 대통령 직속 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(공동위원장: 한덕수 국무총리,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, 이하 탄녹위)가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기후테크 벤처·스타트업 본격 육성에 나선다.
- 탄녹위는 3.13(월)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‘기후테크 벤처·스타트업 타운홀 미팅*’을 개최했다.
 - *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
 - 이번 타운홀 미팅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한 축인 2023년 5월 개최 예정인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인 부산에서 개최됐다.
 - 이날 행사에서 탄녹위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후테크를 육성할 정책의지를 밝히고, 이와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,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.
 - 이 자리에는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, 박형준 부산 시장, 박수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후테크 기업인, 투자자, 시민, 청년, 중소벤처기업부, 부산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미래 유망산업인 기후테크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.

1

기후테크의 개념

- 기후테크는 기후(Climate)와 기술(Technology)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한다.
- 기후테크는 클린·카본·에코·푸드·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며, 에너지(클린), 탄소포집·산업·물류(카본), 환경(에코), 농식품(푸드), 관측·기후적응(지오) 등 기후산업의 전반적 분야를 포괄한다.
- 5대 분야로는 ①재생·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‘클린테크(Clean Tech)’, ②공기 중 탄소포집·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‘카본테크(Carbon Tech)’, ③자원순환,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‘에코테크(Eco Tech)’, ④식품 생산·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‘푸드테크(Food Tech)’, ⑤탄소관측·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‘지오테크(Geo Tech)’가 있다.



- 현재,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*으로 탄소감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, 관련 산업·기술 분야의 성장세도 뚜렷하다.

* 한국·미국·프랑스·영국 등(2050년 선언), 독일·스웨덴(2045년), 중국 등(2060년)

-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한 해 500억 달러(60조원) 내외의 기후테크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, 투자금은 매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.
 - 기후테크 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.
 - * '21년 기후테크 투자금은 537억달러로 '16년 66억달러에 비해 8배 성장(블룸버그)
 - EU, 미국,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테크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,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뒤처질 경우 자칫 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.
 - * '20.하~'21.상반기 중 미국 566억달러, EU 183억달러, 중국 90억달러 기후테크에 투자(PwC)
- 한편 ESG 경영, RE100 참여를 선언한 대기업뿐만 아니라,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벤처기업과 임팩트 투자자가 늘어나는 등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.
 - 특히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일반제품 대신 기후테크 제품을 구매할 의사를 지닌 MZ세대 소비자가 등장하여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.
 - * 10명 중 9명은 친환경 제품 구매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, 응답자의 54.3%가 10% 이내의 추가 비용을 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을 밝힘(KB금융 여론조사, '21.9)

2 기후테크에 대한 각계 의견

- 이날 행사에서 기후테크의 5개 분야 중 하나인 지오테크에 해당하는 나라스페이스의 박재필 대표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탄소 관측·감시 기술을 설명하고, 해당 시장의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.
 -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탄소 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는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큐브 위성을 여러 개 발사해 방대한 영역을 관측하여 탄소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획득한 후 AI로 해석하는 기업이다.
 - 나라스페이스는 탄소감축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·분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이 데이터를 판매하고,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.

-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자 기후변화 전문기관인 BNZ파트너스의 임대웅 대표는 기후테크 투자 시장의 현황과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.
 - 임 대표는 경기침체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벤처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, 미래를 위한 기후테크 투자는 올해에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.
 - 기후테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, 선진국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성장하는 기후테크 산업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.
- 중소벤처기업부의 윤세명 기술혁신정책과장은 기후테크의 개념과 국내외 기업·투자 현황을 소개하고,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.
 - 기후테크 벤처·스타트업은 탄소중립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,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, R&D, 규제개선 등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.
-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기후테크 기업인들은 기후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시장 창출과 투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,
 - 규제개선과 인력양성,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건의했다.
- 기후테크 투자자들은 민간 투자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투자 시스템을 조성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.
- 부산 시민과 청년들은 2023년 11월에 있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기후테크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,
 -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높은 기술 수준 및 역량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

- 탄녹위는 이날 행사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,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기후테크 벤처·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이후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.
- 이 내용에는 기후테크에 대한 현장 의견과 폭넓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민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기후테크 벤처·스타트업 진흥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.
- 또한, 다가오는 5월에 부산에서 있을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(WCE)에서도 기후테크의 현 기술 수준과 미래 가능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, 관계기업 및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.
- 이를 통해, 올해 11월에 부산이 ‘세계의 대전환,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’를 주제로 한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.
- 박형준 부산시장은 “21세기 문명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추세는 기후 위기,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고, 현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기후테크”라고 설명하며 “부산이 앞장서서 기후테크를 활성화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“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. 글로벌 공동목표인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약진할 수 있다”며, “탄소감축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테크 벤처·스타트업을 육성해 탄소중립을 한 발 앞당기고,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포용전환국	책임자	과 장	양대성 (044-200-1932)
		담당자	전문위원	황보람 (044-200-1935)
<공동>	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	책임자	과 장	이인홍 (044-201-6701)
		담당자	서기관	서지원 (044-201-6702)
<공동>	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세명 (044-204-7740)
		담당자	사무관	원미연 (044-204-7745)
		담당자	주무관	박주영 (044-204-7747)

□ 행사 개요

-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및 국가 녹색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기후테크·벤처 육성과 관련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천 방향을 논의
- 기후벤처·스타트업 기업인, 투자자, 일반시민, 중앙·지방정부의 논의 결과를 기후테크 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종합적인 **활성화** 대책을 마련

□ 행사계획(안)

- (일시·장소) 3.13(월) 11:00 ~ 13:00 /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
- (주최) 탄녹위, 부산시 / (주관) 부산연구원, 부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
- (참석자) 김상협 탄녹위원장, 박형준 부산광역시장, 박수영 국회의원, 신현석 부산연구원장, 기후벤처·스타트업 기업인, 투자자 등 100명 내외
- 세부 계획(안)

구분	시간		소요시간	비고
식전행사	11:00~11:03	3'	▶ 개회 및 국민의례	사회자(전문 아나운서)
	11:03~11:08	5'	▶ 환영사(부산광역시장)	
	11:08~11:13	5'	▶ 환영사(탄녹위원장)	
	11:13~11:18	5'	▶ 축사Ⅰ(박수영 국회의원)	
	11:18~11:20	2'	▶ 축사Ⅱ(김미애 국회의원)	영상
	11:20~11:22	2'	▶ 축사Ⅲ(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)	영상
	11:22~11:25	3'	▶ 사진 촬영	
본행사	11:25~11:32	7'	▶ 발표1 : 기후벤처 기업인	나라스페이스 박재필 대표 * 부산 기반 기후변화 위성관측 업체
	11:32~11:39	7'	▶ 발표2 : 기후벤처 투자자	BNZ 파트너스 임대웅 대표 * 기후테크 투자 위한 민간펀드 운용
	11:39~11:46	7'	▶ 발표3 : 정부부처	중기부 윤세명 기술혁신정책팀장 * 기후테크 육성 필요성 및 정책방향
	11:46~12:55	69'	▶ 자유토론 : 기후테크 발전 아이디어 토론	좌장(부산연구원장)
	12:55~13:00	5'	▶ 마무리 발언	탄녹위 포용전환국장
	13:00		▶ 폐회 선언	사회자(전문 아나운서)

참고2

기후테크의 유형 및 세부분류

◆ 기후테크는 기후(Climate)와 기술(Technology)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

○ 클린테크, 카본테크, 에코테크, 푸드테크,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구성

구 분	개념	세부 분류	
클린테크 (Clean Tech)	재생·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	재생에너지	재생에너지 생산, 에너지 저장 장치, 건물전기화
		에너지신산업	가상발전소, 송배전 분산형 에너지공장, 에너지 디지털화
		탈탄소에너지	원전, SMR, 수소, 핵융합 등 대체 에너지원 발굴
카본테크 (Carbon Tech)	공기 중 탄소포집· 저장 및 탄소 감축 기술 개발	탄소포집	직접포집(DAC), CCUS, 생물학적 탄소제거
		공정혁신	제조업 공정 개선, 탄소저감 연·원료 대체
		모빌리티	전기차, 차량용 배터리, 물류, 퍼스널 모빌리티
에코테크 (Eco Tech)	자원순환,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	자원순환	자원 재활용, 폐자원 원료화, 에너지 회수
		폐기물절감	폐기물 배출량 감축, 폐기물 관리시스템
		업사이클링	친환경 생활소비제품
푸드테크 (Food Tech)	식품 생산·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감축	대체식품	대체육, 세포배양육, 대체유, 대체아이스크림
		스마트식품	음식물쓰레기 저감, 친환경 포장, 식품 부산물 활용
		애그테크	친환경농업, 대체비료, 스마트팜
지오테크 (Geo Tech)	탄소관측·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	우주·기상	위성 탄소관측, 모니터링, 기후감시·예측, 기상정보
		기후적응	물산업, 재난 방지 시설·시스템
		AI·데이터·금융	기후·탄소 데이터 컨설팅, 녹색금융, 블록체인, NFT